

중 수입산 분유 시장점유율 70% 초과

국내 수입분유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식품도축수출입상회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수입분유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2008년도 50%까지 성장했다. 고급분유의 경우는 이미 70%를 초과했다. 이는 최근 끊임없이 국산분유 위생파동이 발생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분유에 맹목적인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입산 분유는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EU 수입 분유와 미국 수입 분유 등으로 분류된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지는 방목 위주이며, 미국은 사육위주로 중국과 같은 형태다. 이중 유럽(세계1-4위 낙농장이 모두 유럽 소속)과 뉴질랜드 우유는 전 세계 최고로 평가 받아 왔다.

국내에도 좋은 원유공급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유명브랜드 네슬레(Nestle)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산둥(山東), 내이멍구(內蒙古) 등 지역의 낙농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국내기업들은 원산지의 인지도 면에서 많이 밀리는 상황이다. 이에 멩니우(蒙牛) 등 국내기업들은 고급분유에 '100% 북유럽 수입 원유사용'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고급 이미지를 형성하고, 중저급 분유에만 국내원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축산사료단체 미국에 옥수수 연료사용 삭감 요청

일본 전농 등 6개 축산사료관련 단체는 미국 농무성 장관에게 사료 원료가 되는 미국산 옥수수의 안정된 가격 확보를 위해 옥수수 연료 사용 삭감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 단체들은 이 서한에서 미국내에서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 제조에 옥수수의 사용을 2년간 삭감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오는 2015년까지 150억갤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옥수수 유래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완화도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미국 정부에 기술리에 옥수수 유래 에탄올을 일정비율 혼합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재생가능 연료기준(RFS)의 적용도 2년간 면제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 기준 적용이 계속되면 미국내 옥수수 수확량의 40%정도가 사용되어 옥수수 수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미국내에서도 일시적인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한에 연명한 단체는 전농외에 협동조합 사료공업회, 전낙연, 양계농협 연합회, 녹말,당화 공업회, 사료 수출입협의회등으로 사료용 옥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낙농가와 유업체간 공정거래 규약 체결 예정

영국 낙농가들과 유업체간 공정 거래관계를 정한 규약안이 마련되어 최종적인 발표에 앞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낙농가들 대표와 유업체는 자발적인 우유 거래 규약안 마련을 위해 수개월간 협의를 거쳤으며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면 이번 가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약에는 유업체의 농가 유대 변경시 최소 30일 이전 통지를 의무화하였으며, 낙농가들도 집유업체 변경전 3개월 전에 유업체 통보를 하여야 하는 조항을 명문화 하였다. 또한 낙농가들의 철저한 규약 이행을 위해 농가 단체는 내부 신고시스템을 갖춰 집유질서를 유지 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며 유업체들은 공정 유대산정을 위한 가격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약에 대해 낙농가 단체는 농가들이 현재의 불안정한 유대체계에서 생산비를 감당한 안정적인 집유 계약을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업체들도 안정적인 집유선 확보로 증대된 수익을 낙농산업 발전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